

공포지수 최고치에도 개미들, 반도체 레버리지로 몰렸다

상위 4개 상품에 3.7조 이상 유입
삼전·하닉 2배 ETF 수익률 하위권
주가 하락, 저가 매수 기회로 판단

국내 증시 변동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까지 치솟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대거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공포가 극대화된 상황에서도 하락을 위험보다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1주 일간 자금유입 상위 금융투자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휩쓸었다.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에는 1조2208억원이 유입되며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KODEX 삼성전자인종목레버리지(1조17억원),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7442억원), TIGER 삼성전자인종목레버리지(7366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위 4개 상품에만 3조7000억원이 넘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는 자금이 몰렸다. SK하이닉스(24.67%)와 삼성전자(17.89%)를 합산 42.56% 비중으로 편입한 SOL AI반도체 TOP2플러스(순자산 7423억원)까지 포함하면, 순자산 상위권은 대부분 반도체 관련 ETF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시장 분위기와는 다소 엇갈리는 흐름이다.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지

난 9일 장중 91.23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도 장중 87.96을 기록하며 여전히 금융위기 수준의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연초 30선 수준이던 지수가 석 달여 만에 세 배 가까이 뛴 셈이다.

통상 공포지수가 급등하면 투자자들은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 인버스 상품 등 방어형 상품으로 이동한다. 실제 최근 1주

수익률 상위권도 인버스 상품이 차지했다. PLUS 삼성전자선물인버스2X는 26.03%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PLUS 200선물인버스2X(19.25%), KODEX 200선물인버스2X(18.99%), RISE 200선물인버스2X(18.29%)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상품들의 성과는 부진했다.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는 최근 1주 수익률이 -28.83%를 기록했고 TIGER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28.89%)도 비슷한 수준의 손실을 냈다. KODEX 삼성전자인종목레버리지(-33.04%)와 TIGER 삼성전자인종목레버리지(-33.32%) 역시 수익률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수익률 하위권 상품에 자금이 집중됐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최근 급락을 엄황악화 신호가 아닌 매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미국발 기술주 조정과 중동 리스크 확대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AI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장기 성장 기대가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잇달아 상향하고 있는 점도 저가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증권사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주가는 삼성전자 48만5714원, SK하이닉스 330만8333원으로 10일 증가 대비 각각 60%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는 평가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현재 고객사의 메모리 수요 충족률이 50% 수준에 불과해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며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한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개인투자자들이 급락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장기 낙관론이 레버리지 상품 매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alkova@metroseoul.co.kr



스페이스X 몸값 2660조 두고 '갑론을박'

모닝스타 "사업 계획, 난제에 의존"
아크인베스트 "현실 성장제도 근거"
엇갈린 평가 속 투자자 손실 우려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11일 주당 135달러에 기업공개(IPO)를 진행하며 기업 가치 1조7500억달러(약 2660조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같은 몸값의 적정성을 두고 투자자들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리서치 회사 모닝스타는 스페이스X의 적정 기업가치를 7800억달러(약 1200조원)로 평가했다. 이는 목표 몸값보다 절반 이상 낮은 수준이다.

모닝스타 애널리스트들은 스페이스X의 사업 계획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공학적 난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스페이스X를 최대 보유 종목으로

둔 자산운용사 아크인베스트는 1조7500억달러 안팎의 목표 가치가 미래에 대한 가정에 기반하긴 하지만 "현실적인 성장제도에 근거한다"고 평가했다.

아크는 오히려 2030년까지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2조5000억달러(약 38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의 상장 전 영구선물 시장에서는 최근 기술주 약세 영향으로 스페이스X의 예상 시가총액이 5월 말 2조3000억달러(약 3496조원) 이상에서 약 2조달러(약 3040조원) 수준으로 낮아지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 첫날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른 위험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이후

몇 주 사이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플로리다대학교 제이 리더 명예교수가 집계한 과거 자료에 따르면 IPO 종목의 약 4분의 1이 상장 후 3년 내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거 큰 기대를 모으며 화려하게 데뷔했던 대형 기술주들의 상장 1년 차 성적표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시장조사업체 팩트셋(FactSet) 데이터에 기반한 주요 기술기업의 상장 후 1년간 주가 추이를 살펴보면 승자 공유 플랫폼 우버는 21% 하락했고, 메타플랫폼은 31%나 폭락했다. 반면 팔란티어는 상장 후 1년간 첫날 증가 대비 153% 폭등하며 최고의 성과를 냈고 에어비앤비(25%)와 테슬라(18%)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운용, 삼전·닉스 레버리지 순매수 1위

2종 합산 4조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와 KODEX 삼성전자인종목레버리지가 상장 이후 누적 개인 순매수 기준 각각 약 2조4000억원, 2조원을 기록해 2종 합산 4조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장 이후 현재까지 누적 개인 순매수 규모를 살펴보면,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는 누적 개인 순매수 2조3881억원을 기록, 같은 상품군 가운데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KODEX 삼성전자인종목레버리지' 역시 1조9815억원의 누적 개인 순매수를 보이며 각각의 레버리지 상품군 중 개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매수세에 힘입어 순자산도 빠르게 증가했다.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가 2조7138억원, 'KODEX



삼성전자인종목레버리지'가 2조1461억원으로, 두 상품의 합산 순자산 규모만 4조8599억원을 기록했다.

KODEX 단일종목 레버리지 시리즈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시장에서 증명된 풍부한 거래량과 유동성이다. 일일 평균 거래대금은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레버리지'가 2조7614억원, 'KODEX 삼성전자인종목레버리지'가 1조9721억원에 달한다. 일일 평균 거래량 또한 각각 약 1억364만주, 약 7779만주라는 제1 큰 규모를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금감원-네이버페이 '모험자본 플랫폼' 구축

금융감독원이 네이버페이와 손잡고 모험자본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모험자본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벤처캐피탈(VC), 중소·벤처기업 간 투자 정보를 연결해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네이버페이, 중소벤처기업부,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증권사, 벤처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험자본 플랫폼' 설명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험자본 플랫폼은 투자자와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투자 대상 발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플랫폼에는 증권사와 VC, 중소·벤처기업이 직접 투자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된다. /허정윤 기자

ETF CHECK, 차세대 정보 플랫폼 '우뚛'

코스콤, 일평균 100만건 트래픽
기관 투자자금 고정밀 분석환경 지원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순자산 총액 5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정보 경쟁력'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상품수가 급증하고 투자 전략이 다양해지면서 투자자들은 ETF를 선택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됐다.

코스콤의 ETF 정보 플랫폼 'ETF CHECK'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국내의 상장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며 투자자와 자산운용사가 시장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자에게는 상품 비교와 분석을 위한 '정보 창구' 역할을, 자산운용사에게는 투자자와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마케팅 채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의성+정밀성' 두 마리 토끼... 신뢰도 높은 선두 플랫폼

ETF CHECK가 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주목받는 배경에는 실시간 데이터 제공 역량을 꼽을 수 있다. ETF는 장중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상품인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ETF CHECK는 실시간 투자지표를 비롯해 자금 유입 현황, 괴리율, 배당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정밀성과 시의성을 모두 잡은 것이다.

특히 ETF 적정 가치와 시장 가격 간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는 투자자가 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자산운용사 역시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상품 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ETF CHECK는 단순한 정보 조회 서비스를 넘어 ETF 시장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ETF CHECK는 일평균 100만건 이상의 트래픽과 ETF 투자에 고도로 집중된 전문 이용자층을 기반으로, 자산운용사들에 신규 상품과 성과를 타깃 고객층에게 완벽히 노출할 수 있는 '마케팅 채널'이 돼 주고 있다. 동



코스콤은 상장지수펀드(ETF) 정보 플랫폼 'ETF CHECK'를 개발·운영하고 있다. /코스콤

시에 정보 접근성 면에서 제한적이었던 개인 투자자(B2C)들에게는 기관 투자자급의 고정밀 분석 환경을 지원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외국인 투자자도 한눈에... '영문 서비스'로 글로벌 시장 조준

국내 ETF 시장의 순자산 500조원 돌파와 함께 한국 자본시장에 직접 진입하려는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에 ETF CHECK는 영문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며 해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 서비스 영역이 영문으로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국내 투자자들과 다름없이 실시간 정보와 테마별 포트폴리오 분석 데이터를 모바일 및 웹을 통해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국내 시장 투자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내 ETF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연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장은 "ETF CHECK는 복잡한 금융 데이터를 가장 빠르고 직관적으로 재구성하여 대한민국 ETF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온 선두 브랜드"라며, "앞으로도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비즈니스 성장을 강력히 지원하는 선두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지는 것은 물론, 영문 서비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글로벌 금융 고교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